



말씀의 초대 | 행 20:35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문형규 목사
높은뜻위례교회
서울동지방회장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받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가를 얻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며 부모의 재산도 형제간에 내가 더 많이 받을까를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받을 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을까?

첫째로, 주는 것이 성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때는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다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드리고 싶어진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드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된다.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기도도 초신자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요 복된 마음이다.

둘째로, 주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쥐야 한다. 쥐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지게 된다. 꽃들도 벌과 나비에 게 자신의 꽃가루를 쥐서 다른 꽃에 수정이 되어야 자신과 같은 꽃들이 계속 살아나게 된다. 나무들도, 물고기들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몸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내가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 줄 줄을 모르고 받기만 하면 그 은혜는 얼마가지 않아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면 나눠주는 만큼 내게 더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셋째로, 주는 것은 예수님과 천사를 대접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들을 향하여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많이 도와주자. 도와줄 때는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 부족한 가운데서 도와주자. 이것이 참된 도움이며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특별기고



심상훈 목사
고은교회
총회 아동부장

유년에도 부러운 폭염이 너무 길게 지속되는 요즘에도 많은 교회나 단체들이 더위와 맞서 싸우며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현상이 있어, 예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아동부부장 심상훈 목사께서는 올해 여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동 사역을 진행하는 현상이 파악되는 대로 찾아가서 격려하며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가 총남의 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던 2000년 초반 해도 인근의 초등학교 전교생 50여 명 가운데 47~8명이 필자의 목회지인 교회에 모여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뜨겁게 아이들을 양육하였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이 흐르면서 이농현상과 저출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줄었고, 답기야 인근의 2~3 교회 그리고 7~8 교회가 모여 10여 명의 아이들을 놓고 여름성경학교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고, 연약해지는 교육기관 특히 교회학교 아동부의 상황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또는 지방회나 감찰회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여름성경학교나 캠프의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현장이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최후의 한 영혼이 남는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붙잡고 사역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총회 아동부장을 맡고 보니, 전인 선배 목사님들께서 아동부장으로 수고하시면서 후원회를 조직하여 꾸준하게 조식을 높으셨다. 이 정성 어린 후원을 바탕으로 아동부에서는 꾸준히 열악하지만 꾸준하게 아동 사역을 펼치는 현장을 찾고 있으며 격려하고 후원하며 응원할 것이다. 총회 교육국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어린이 캠프나 모이기 힘든 현대의 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습회나 프로그래밍 도입을 준비하여 열악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아동부를 통해 희망을 찾는 사역 펼쳐 나갈 것



이 시대에 예성의 아동부를 통해 ‘희망을 찾는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아동 사역!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어린 영혼들을

섬는 사역에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동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칼럼

담관암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사망률 1위의 ‘고약한 암’으로 불리는데,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담관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수술받을 수 있는 환자는 20~30%에 그치고 있다.

국내 암 환자 평균 5년 생존율이 70%를 웃돌지만 담관암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담관암의 5년 생존율이 29%로 직장암(15.2%) 다음으로 낮고 폐암·간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담관암은 간에서 만든 쓸개즙(담즙)이 흐르는 담관(담도·간에서 십이지장까지 연결되는 관)이나 담낭(쓸개·담즙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7~10cm 정도의 찡고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담관암은 간 내 담관암, 간 외 담관암, 담낭암(50%) 등 세

가지로 통칭해 이른다.

담관암도 다른 암처럼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의 하나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경우가 많다. 내게 소화기 잘 안되거나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한 흔한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관암 진단을 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증상은 ‘황달(黃疸)’이다. 황달은 담관이 폐쇄되고 담즙배출이 막혀 혈액 내 빌리루빈(담즙 주성분) 수치가 높아져 생기는 현상이다. 또한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담도 폐쇄가 진행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복통이나 체중 감소, 피곤함, 식욕부진, 구토, 명치 통증 등 비특이적인 증상도 나타나지만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쉽지 않다.

발생 요인으로선 △ ‘간디스토파’로 불렸던 간흡충 같은 기생충 질환 △ 오래된 담석(담관 결석) △ 담관 확장을 동반한 선천성 기형 △ 담낭 용종이 1cm 이상일 때 등이 꼽힌다. 비만·과체중이어도 담관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담낭에 암이 발생하는 담관암 환자의 60% 이상은 담석을 가지고 있다. 담석이 있으면 담관암 발생 위험도가 4~7배 증가한다. 특히 담석 크기가 3cm 이상이면 암 발생 위험이 10배가량 높아진다.

진단은 CT나 MRI로 진단하나 쉽지 않다. 치료는 면역항암제인 ‘인린지성분명 더 발루탐’이 2022년 국내에서 사용된다. 인린지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 전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다. 담관암은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데 부작용이 심한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기존 표준 요법(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 받은 담관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가까웠는데 인린지는 한국 의료진이 주도한 임상 시험에서 3년 뒤에도 생존하는 환자가 있다.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우리보다 담관암 사망률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빨리 받았더라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64)씨는 다행히 담관암(담도암)을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재발해 담당 의사로부터 항암치료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A씨는 실비 보험도 들지 않아 치료비 부담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초기 진단도 어렵고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다른 암에 비해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담관암 발병 위험 인자로는 담석과 용종 등 2가지다. 우선 담석은 담낭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다. 담낭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다. 담낭 용종은 5~10% 정도다. 담낭 용종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50세가 넘었는데 목이 없는 평평한 단일 용종이거나, 담석도 함께 있다면 담낭암일 가능성이 높다.

조성구 원장
한사랑병원



제1회 총회장배 유튜브 숏폼(Short Form) 공모전



■ 목적: 넘쳐나는 디지털 콘텐츠 가운데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은 별로 없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성결가족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공유해서 다음세대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장년세대들에게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했으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출품기간: 2024. 9.10 ~ 11.5(2개월간)

■ 주관: 성결신문사

■ 대상: 교단내 전 성도(목회자 포함), 성결대학교 학생

■ 제출처: 성결신문사 e-mail 계정 sknews12@daum.net

■ 주제: ① 자유(가정, 교회의 일상적인 내용, 간증, 예배, 찬양, 율동 외) ② 사중복음 ③ 꿈

■ 심사기준

- 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은혜와 감동
- ②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제공

■ 발표: 2024. 11.19 성결신문 596호, 추수감사절 출품된 작품은 1차 심사를 통해 성결신문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 시상

- ① 총회장배: 상패, 상금 30만원
- ② 성결신문사 사장배: 상패, 상금 20만원
- ③ 장려상: 상장, 상금 10만원
- ④ 신속상: 상품권(제일 먼저 제출자)
- ⑤ 열정상: 상품권(제일 많이 응모한 자)

■ 유튜브 Shorts 제작 기준

- ① 제출작품은 순수 창작물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② 자유창작 동영상
- ③ 1분 미만
- ④ 위법하게 촬영된 영상은 접수 불가합니다.
- ⑤ 출품된 영상내 모든 소스는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함. (이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심사위원: 교단내 전문가 4명 이내(명단은 시상식 후 공개)

■ 동영상 샘플 및 문의: 강병익 장로 010-3747-7229

성결신문사

